

2016년 서울시 9급 A책형 국어 해설

박우찬

노량진 월비스고시학원

수원 공무원사관학원

<http://cafe.daum.net/woo-chan>

□ 출제 경향 분석

이번 서울시 9급 시험은 문법 12문항, 어휘 4문항, 문학 3문항, 독해 1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는 문법 문제가 12문항이나 출제된 점, 그중에서 '문법 이론' 문제가 8문항이나 출제된 점을 들 수 있다. '문법 이론' 전반을 골고루 공부한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다. 다만, 통사론 2문항은 문장성분, 서술어의 자릿수, 문법요소를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출제 경향을 보여주었다. '어문 규범' 4문항도 기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어휘 영역에서 고유어 1문항, 한자(성어) 3문항이 출제되었다. 한자 표기는 기본적인 한자를 묻는 문제였고, 한자성어 표기는 한자성어 중에서 맞는 한자를 고르는 문제였다. 선택항을 하나 예로 들면, 麥秀之嘆(맥수지탄)에서 '秀'가 맞는 한자인지 출제되었다. 배경 고사(故事)와 관련하여 '보리가 패다(이삭이 나오다)'라는 뜻을 지니는 한자는 '秀'가 맞다. 이처럼 평소에 한자성어를 고사와 함께 공부하면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되고 한자를 익힐 때도 유익하다.

문학과 독해 영역에서는 현대소설 1문항, 현대문학사 2문항, 글다듬기 1문항이 출제되었다. 현대소설 1문항은 배경 지식 없이 제시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였다. 현대문학사 2문항은 시험 직전에 서울시와 다른 직렬(국회직, 기상직, 경찰직 등)의 문학사 기출 문제를 정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밖에 작문 영역에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글다듬기가 1문항 출제되었다.

| 2016년 | | 문항 수 | 출제 영역 |
|----------|----------|------|--|
| 문법 12 | 문법론 | 8 | 국어 이해 <1>, 음운론(음운변동) <1> 형태론(단어형성, 품사) <2> 통사론(사동문, 문장성분) <2> 의미론(동음어와 다의어) <1>, 훈민정음 <1> |
| | 어문 규범 | 4 | 표준 발음법 <1>, 띄어쓰기 <1> 표준어 <1>, 외래어 표기 <1> |
| 어휘 4 | 고유어 | 1 | 뜻풀이 <1> |
| | 한자, 한자성어 | 3 | 한자 표기 <1>, 한자성어의 의미 <1>, 한자성어의 표기 <1> |
| 문학 3 | 현대 문학 | 1 | 현대소설(이태준 '달밤') <1> |
| | 현대 문학사 | 2 | 작품 시대적 배경 <1>, 문학사 <1> |
| 독해 1 | 작문 | 1 | 글다듬기 <1> |

우찬국어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꼬나풀 - 새벽녘 - 샅쟁이 - 떨어먹다
-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답다
-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강아지
- ④ 보조개 - 솟양 - 광우리 - 강남콩

정답 ③ [표준어 규정]

<해설> '치켜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수강아지'는 모두 표준어이다.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를 뜻할 때에는 '치켜세우다/추어주다/추어올리다'가 표준어이다. 이 경우에는 '추켜세우다'를 쓰지 못한다. • 삭월세(x), 설것이(x), 솟강아지(x)

[오답 풀이]

- ① ➔ 샅쟁이/샷(o), ➔ 털어먹다(o). • 꼬나불(x), 새벽녘(x)
- ② ➔ 셋째(o), ➔ 애달프다(o). • '뜯게질'은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빨래할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 뜨개질(o), 솟병아리(x)
- ③ ➔ 광주리(o), ➔ 강남콩(o). • '보조개/불우물'은 복수 표준어. 수양(x)

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났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우찬국어

-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 포도는 장사 밀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 ① [현대소설_맥락이해]

<해설> ㉠에 나타난 황수건의 행위만으로 그 후에 장마가 들어 참외 장사 밀천만 까먹게 되는 사건을 예상하기 어렵다. 돈 삼 원에 기뻐하는 황수건의 천진하고 순수한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사건의 경과를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에 황수건의 고마움이 묻어난다.
- ④ “은근한 순정의 열매”에 ‘나’의 황수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잘 나타난다.

[해제] 이태준 단편소설 '달밤'(1933)

1930년대의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다. 이 소설은 화자인 '나'와 주인공인 '황수건'이라는 사내가 엮여 나가는 이야기이다.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아픔을 겪는 모습이 중심이 된다. 황수건을 바라보는 '나'의 연민과 애상적 분위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가는 우둔하지만 순박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이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가는 각박한 세태를 넉넉히 꼬집고 있다.

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정답 ④ [음운변동]

<해설> ④는 음운 탈락 현상이고 나머지 셋은 음운 축약 현상이다. ④는 어간 '가-'와 어미 '-아서'가 만나 어미의 첫음절 모음 '아'가 탈락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 **‘한글 맞춤법’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 어미 첫음절 모음 ‘아/어’ 탈락 양상이다.

[오답 풀이]

- ①③ 자음 축약 현상. 자음 ‘ㅂ, ㄷ, ㅈ, ㅊ’와 ‘ㅎ’이 만나면 거센소리 ‘ㅃ, ㄸ, ㅉ, ㅊ’로 축약된다.
- ② 모음 축약 현상. 어간 끝음절 모음 ‘ㄴ’이 어미의 첫음절 모음 ‘-어’를 만나면 ‘ㄹ’로 축약될 수 있다.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16년 서울시 9급]

-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떨 뿐 한적했다.
-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우찬국어

정답 ② [품사]

<해설> '수를 나타내는 말'의 품사가 문제된다. '수를 나타내는 말'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이고, '수를 나타내는 말'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면 관형사이다. ②의 '농부가 한둘(이) 눈에 띈 뿐'에서 '한둘'은 뒤에 주격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주어이므로 '수사'이다. 이와 달리 '한, 두, 두세'는 모두 뒤에 오는 단위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수 관형사'이다.

• 한둘(하나둘): [I] 「수사」 하나나 둘쯤 되는 수. ㉠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띈 뿐 한적했다.

[II] 「명사」 「1」((주로 '한둘이' 꼴로 쓰여 뒤에 오는 '아니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조금'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기관지를 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2」어떤 일이나 현상이 적은 수부터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내는 말. ㉢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한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 ③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정답 ② [고유어]

<해설> '비나리치다/비나리 치다'는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것을 가리킨다.

• 비나리: 「1」 『민속』 걸립(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 『민속』 걸립패가 마지막으로 행하는 마당곳에서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받아 놓고 외는 고사 문서. 또는 그것을 외는 사람.

「3」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 ㉠ 비나리를 치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씨클(circle)
-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정답 ④ [외래어 표기법]

<해설>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모두 맞다.

• 뱃지(x), 앵콜(x), 컨테스트(x), 넌센스(x)

[오답 풀이] ① ➡ 옐로(o). 이중모음 [ou]는 '오'로 표기한다.

② ➡ 알코올(o), ➡ 서클(o).

③ ➡ 도넛(o).

우찬국어

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 |
|------------------|---|
| 신문 보도 |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
| 해 명 자 료 |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

-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 ④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글다듬기]

<해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으로 해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에서 '재외국민의 아이핀 발급 어려움'을 화제로 거론하고, (2)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문 기사의 역삼각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②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다.

③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입력이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 서술적 성격의 명사 '입력'과 '신청'이 대등하게 접속되었다.

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디근이[디그시], 훌이불[훈니불]
- ② 똥는[똥는], 밝히다[발키다]
- ③ 할다[할따], 넓죽하다[넙쭈카다]
- ④ 흙만[흑만], 동원령[동:원녕]

정답 ① [표준 발음법]

<해설> • 디근이[디그시]: 한글 자모의 발음 중 일부는 '표준 발음법'에 규정된 발음 관습에 따른다.

• 훌이불[훈이불→훈니불→훈니불]: (i) 음절의 끝소리 규칙, (ii) 첫소리 'ㄴ' 첨가, (iii)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우찬국어

- ① '귀중하고 요긴함'을 뜻하는 한자어는 '중요(重要)'가 맞다. 重: 무거울<중>, 仲: 버금, 가운데<중>
- ②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한자어는 '대중(大衆)'이 맞다. 大: 클<대>, 對: 대답할<대>
- ③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을 뜻하는 말은 '중개(仲介)'가 맞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중개사(仲介士)'로 쓴다. 仲: 버금, 가운데<중>, 重: 무거울<중>

11. 다음 중 <보기>와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보기>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것이로다.

- ① 김주영의 「객주」 ② 이범선의 「오발탄」
- ③ 박경리의 「토지」 ④ 황석영의 「장길산」

정답 ② [현대문학사] 서울시 문학사 기출 참고

<해설> '보기'의 시는 구상의 「초토(焦土)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이다. 구상의 「초토(焦土)의 시」 연작은 한국 전쟁(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초토'는 폐허가 된 조국을 가리킨다.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이와 같은 것은 ② 이범선의 「오발탄」이다. 「오발탄」(1959)은 한국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은 월남한 철호 일가의 삶을 통해서 전후의 비참하고 혼란한 상황을 그리면서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인은 오발탄과 같은 비극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김주영의 「객주」: 19세기 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보부상 천봉산을 둘러싼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보부상 집단의 출현과 상업 활동, 정치세력과의 관계 양상을 그렸다.
- ③ 박경리의 「토지」: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지주 집안의 몰락과 재기를 그리고 있다.
- ④ 황석영의 「장길산」: 조선 숙종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의적이었던 장길산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참고] 구상, 「초토의 시」(1956)

총 15편의 연작시로 된 이 작품의 현장은 한국전쟁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다. 그러나 그의 시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절망과 탄식에 그치지 않고 전쟁의 비극과 참회, 이데올로기에 앞서는 형제애와 인류애를 강조한다.

우찬국어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보기>

| | | |
|-----|---------------------------|-----------------|
| 주동문 |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 ㉡ 마당이 넓다. ↓ |
| 사동문 |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

-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정답 ③ [사동문]

<해설> ③ 형용사 ㉡'넓다'가 사동사 ㉣'넓히다'가 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높다/높이다, 낮다/낮추다'처럼 형용사도 사동화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동문에는 파생된 사동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파생적 사동문,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배열하여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문이 있다. ㉢처럼 어근 '먹-'에 접사 '-이-'가 붙어 '먹이다'가 서술어가 된 문장은 파생적 사동문이다. ㉠은 본용언 어간 '먹-'에 연결 어미 '-게'가 붙고, 보조용언 '하다'가 배열되어 하나의 서술어가 된 통사적 사동문이다.
- ② 주동문의 주어가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 주동문의 주어는 ㉠에서처럼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는 부사어, ㉡에서처럼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다.
- ④ 서술어의 자릿수는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 개별 서술어에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한다. ㉠에서 서술어 자릿수가 2자리(주어, 목적어)였으나, ㉢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를 포함하여 3자리가 되었다. ㉡에서 서술어 자릿수가 1자리(주어)였으나, ㉣에서는 목적어를 포함하여 2자리가 되었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정답 ① [국어의 이해]

<해설> ①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는 한자어이다. '하늘, 바람'은 고유어가 맞다.

[오답 풀이]

- ② '학교(學校), 공장(工場), 도로(道路), 자전거(自轉車), 자동차(自動車)'는 모두 한자어이다.

우찬국어

③ '고무(프랑스), 담배(포르투갈), 가방(네덜란드), 빵(포르투갈), 냄비(일본)'는 우리말처럼 인식되는 외래어이다. 이를 '귀화어'라고 한다.

④ 비어(卑語)의 예로 적절하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 철수 밥 먹는다.
-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은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정답 ③ [문장성분]

<해설> '오늘 내가 본'은 명사 '영화'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관형어 내부에 주어 '내가'와 서술어 '보다'가 있으므로 절(관형절)로 실현되어 있다는 설명도 맞다.

[오답 풀이]

① • '밥'은 타동사 '먹는다'의 동작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철수'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므로 주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 조사가 붙지 않았으므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문장의 마디, 띄어쓰기 단위)이 된다.

② • '그 사람이'는 절이 되지 못한다. '그'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주어 '사람이'는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주어로 실현되었다.

• '그런 심한 말을'은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고, '심한'은 관형절이 관형어가 된다. 목적어 '말을'은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④ 명사절(어미 '-음')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주어로 실현되어 있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16년 서울시 9급]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 ① 登高自卑 ② 角者無齒
- ③ 騎虎之勢 ④ 唇亡齒寒

정답 ③ [한자성어]

우찬국어

<해설>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은 騎虎之勢(기호지세)이다.

| | |
|---|--|
| 騎虎之勢 | 기호지세 騎 말 탈 기, 虎 범 호, 之 갈 지, 勢 형세 세 |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년 국가직 7급] | |

[오답 풀이]

| | |
|---|--|
| ① 登高自卑 | 등고자비 登 오를 등, 高 높을 고, 自 스스로 자, 卑 낮을 비 |
| 「1」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2」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을 이르는 말. | |

| | |
|---|--|
| ② 角者無齒 | 각자무치 角 뿔 각, 者 놈 자, 無 없을 무, 齒 이 치 |
|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16년 1차 경찰직] | |

| | |
|---|---|
| ④ 脣亡齒寒 | 순망치한 脣 입술 순, 亡 망할 망, 齒 이 치, 寒 찰 한 |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
|---|
| <보기> |
| ㉠ 「삼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 ㉣ 『인문평론』, 『문장』 등 우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 지게 되었다. |
|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현대문학사] 서울시 기출 참고

<해설> ㉡ 1900년대 신소설

㉠ 1910년대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1915)

㉢ 1920년대 초기 동인지의 시대

㉣ 1930년대 장편소설

㉤ 1940년대 암흑기 검열과 사상 통제

우찬국어

17.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16년 서울시 9급]

<보기>

①【…에】 ①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②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인다.
 ③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인다.
 ④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⑤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인다.

②【…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③【…에/에게 …을】
 ①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②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 주다.

- ① ①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 ② ①③: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 ③ ②: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 ④ ③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정답 ② [의미론]

<해설> '물체의 그림자가 나타나 보인다.'를 뜻한다.

[오답 풀이]

- ① ① ⑤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인다.
- ③ ③ ②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다.
- ④ ②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ㄹ,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ㅌ, ㄷ, ㅂ,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빙'이 있다.

정답 ④ [훈민정음]

<해설> 연서(連書)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 연서법(連書法), 이어쓰기(니서쓰기)
 - ① 'ㅇ'을 입술소리(순음) 아래 이어쓰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된다.
 - 『해례본』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ㅇ연서순음지하 즉위순경음)
 - 『언해본』 ㅇ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서쓰면, 입시울가비아븐소리 ㄷ외느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諺解本) 「예의(例義)」

우찬국어

② ‘ㅇ’자는 소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빙’을 순경음이라 불렀다. 그 밖의 순경음 글자로 ‘땡, 풍, 뽕’도 있었으나 국어 표기에 쓰인 것은 ‘빙’자뿐이었다.

[오답 풀이]

- ① ‘ㄱ’은 허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본떴다.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은 ‘ㄴ’이다.
- ②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는 ‘ㅋ, ㆁ, ㆏, ㅂ, ㅍ, ㅈ, ㆉ, ㆑, ㆓’ 9개이다. ‘ㄹ’은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다. 이러한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
- ③ 초성 17자, 중성 11자를 합하여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중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하였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대화를▽하면▽할수록▽타협점은▽커녕▽점점▽갈등만▽커지게▽되었다.
- ② 창문▽밖에▽소리가▽나서▽봤더니▽바람▽소리▽밖에▽들리지▽않았다.
- ③ 그▽만큼▽샀으면▽충분하니▽가져갈▽수▽있을만큼만▽상자에▽담으렴.
- ④ 나는▽나대로▽갈▽데가▽있으니▽너는▽네가▽가고▽싶은▽데로▽가거라.

정답 ④ [띄어쓰기]

<해설> ④ 여기서 ‘데’는 ‘장소/곳’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대로’ 앞에 대명사 ‘나’가 왔으므로 ‘대로’는 조사이다. 따라서 앞 단어에 붙여 쓴다.

[참고] ‘데’의 띄어쓰기

1. 띄어 쓰는 경우: 의존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하는) ① ‘장소(곳)’, ② ‘일(것)’, ③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뒤에 붙는 조사가 자주 생략되기도 한다.

| | |
|------|---|
| 장소/곳 | 올 데(도) 갈 데(도) 없는 사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
| 일/것 | 그 책을 다 읽는 데(에) 삼 일이 걸렸다. 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도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
| 경우 | 머리 아픈 데(에) 먹는 약.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 데나 쓴다. |

2. 붙여 쓰는 경우: 연결 어미 ‘-는데/은데/ㄴ데’ (의미 전환)
 앞 절에서 어떤 상황을 미리 말한 후에 뒤 절에서 그 상황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거나 물을 때 쓴다. 앞의 상황과 관련된 일을 시키거나 제안하려 할 때에도 쓴다.

[오답 풀이]

- ① • ➡타협점은커녕. ‘은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ㄹ수록’은 어미이므로 ‘할수록’은 띄어쓰기가 맞다.
- ② • ➡소리밖에. 여기서 ‘밖에’는 ‘오직 그것만’,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창문▽밖에’에서 ‘밖에’는 명사 ‘밖(바깥)’과 조사 ‘에’의 결합이므로 띄어쓰기가 맞다.
- ③ ➡그만큼, 있을▽만큼. ‘만큼’은 앞에 체언(대명사 ‘그’)이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형용사 ‘있을’)이 오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우찬국어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16년 서울시 9급]

- ① 溫古知新 ② 麥秀之嘆
- ③ 識者憂患 ④ 左考右眇

정답 ② [한자성어]

<해설> ② '秀'는 일반적으로 '빠어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삭이 나오다'를 뜻한다.

| | |
|--|--|
| 麥秀之嘆 | 맥수지탄 麥 보리 맥 秀 빠어날 수 之 갈지 嘆 탄식할 탄 |
|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亡國之歎(망국지탄), 亡國之恨(망국지한), 麥秀黍油(맥수서유), 黍離之歎(서리지탄) | |

[오답 풀이]

① '故'가 맞다. '옛것'을 뜻한다.

| | |
|-----------------|--|
| 溫故知新 | 온고지신 溫 따뜻할 온 故 연고 고 知 알지 新 새 신 |
| 옛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앎. | |

③ '字'(글자 자)가 맞다. 글자를 아는 것(배운 것)이 나중에 근심이 된다는 말이다. '識字憂患(식자우환)'은 2016년 경찰직 1차에서 출제된 바 있다.

| | |
|--------------------------------------|--|
| 識字憂患 | 식자우환 識 알 식, 字 글자 자, 憂 근심 우, 患 근심 환 |
|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16년 1차 경찰직] | |

④ '顧'(돌아볼 고)가 맞다. 考: 상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고>

| | |
|-------------------------------------|---|
| 左顧右眇 | 좌고우면 左 왼 좌 顧 돌아볼 고 右 오른쪽 우 眇 결눈질할 면 |
|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 |